영의정 石潭 權大運공묘소 천장

화장하여 납골묘에 안치되는 비운 맞아

▲ 시흥시 도창2리의 이장전 석담공 묘소 전경

▲ 석담공이 이장된 목천읍 동리의 납골묘역

조선조 안동권씨인 영상領相 4인중 1인인 추밀공파 정헌공계 24세 석담石潭 권대운權大運공의 묘소가 참화에 가까운 비운을 맞아 이장되었다. 300여년 된 문화재가 당국에의 신고나 지표 및 발굴조사 등의 절차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파묘되고 화장되어서는 납골묘로 안치된 것이다.

조선 숙종조에 남인의 영수領袖로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 상적하며 우、좌의정을 거쳐 두 차례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오래 재직하며 궤장 杖을 하사받고 기로소耆老所에도 든 석담공은 생세에는 인신人臣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지극함에 이르렀다. 석담공은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증손, 석당石塘 충정공忠貞公 협 의 손자로 광해군 4년, 1612년에 출생하여 숙종 25년, 1699년 10월 23일에 88세로 졸하였다. 생세에 영귀의 극에 이르렀으되 말년이 당화黨禍로 불우하여 사후에 시호諡號와 부조지전不祧之典은 물론 행장行狀다운 행장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도비神道碑는 고사하고 묘갈명墓碣銘조차 얻지 못하였다.

그 후손도 비교적 번창한 편이 아닌데 공 일문의 것으로 세전해오던 고서화와 교지 등 유물이 200여점에 달한다. 이를 종손가에서 소장해왔는데 주손이 해외에 체류중이고 출가인이 된 본손녀는 이를 어찌 간수해야될지 근심하다가 근년에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위탁보관하게 되었다. 이를 기탁받은 서울대박물관측에서는 영구 기증받기를 원하고 있고 위탁자로서는 또한 이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첩에 공의 묘소는 경기 부평富平의 과연리瓜延里에 초장되었다가 뒤에 인천의 도정곡道井谷 임좌壬坐 언덕에 천장하니 수원과 인천간 산업도로변의 부천시 소래읍 도창道倉2리인데 지금은 시흥시 도창2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곳에 후손은 물론 우리 안동권씨인도 살고 있지 않아 위치를 제대로 알고 찾아보는 이가 드물었다. 공의 일대기로는 자손이 지은 장초狀草가 있고 제자 약산藥山 오광운吳光運이 지은 묘지墓誌가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공은 40여세에 내실內室이 비어 홀아비가 되어서도 잉첩妾을 두지 않았다. 피복과 거처가 포의布衣와 같아 지붕에는 풀이 나 그 목이 처마밑에 늘어지고 앞마당은 말을 되돌릴 정도의 대문간조차 없으니 낭관이나 이속이 공사로 왔다가 은신처가 없어 골목 어귀에 둘러앉아 '재상의 집이 이렇게 초라하고 우묵해서야 되겠느냐'고 하였다고 전한다.

석담공의 묘소가 4월 2일에 이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는 부랴부랴 차를 몰아 인천의 부평역앞으로 갔다. 거기에서 권진택權晋澤 남강공종회장을 조우하여 시흥시 도창2동 현지로 갔다. 10시가 못되어 현장에 닿으니 아직 일꾼이나 후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묘소는 상하로 두 분상인데 정승의 유택으로 보기는 어렵게 민망한 규모이고 의물도 망주望柱와 인석人石 한 벌에 상석床石이 놓였을 뿐으로 글자를 새긴 것은 표석表石 하나가 없었다.

조금 있으니 대전에서 서둘러 올라온다는 한 후손이 나타났는데 그는 묘소의 하분下墳이 혹시 실전한 자기 선대의 것이 아닌가 확인코자 하는 기대에 차 있었다. 묘소 주위로는 바짝 근접하여서까지 아파트 등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10여년 전의 전원 풍경에 비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이나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지경이었다. 이 묘역에 남은 부지가 8백평 정도인데 이를 두고도 소유권 분규가 일어나 법정시비까지 겪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시를 조금 넘어 장비와 함께 남자 후손 2인과 여후손 1인이 도착하여 고유告由를 행하고 작업을 시작하였다. 비가 내리는 날씨였으나 10시경부터는 비가 오지 않았다. 망주석과 상석 등을 뽑아 중장비로 옮기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매우 을씨년스러웠다.

이처럼 서둘러 이장하는 것은 종손이 미국에 있어 묘소를 수호할 사람이 없는 것등이 주된 이유라 하였다. 이장할 곳은 충남 천안의 목천읍 동리인데 종손의 선친이 교직생활을 하다가 6、25전란시 피란하였던 것을 연고로 그곳에 마련한 문중산에 화장 납골묘역을 조성하여 각처의 선대묘소를 모두 이장해 모으는 사업의 일환이라 하였다.

12시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굴파작업을 하지 못하고 묘하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중장비로 상하분의 아래 묘소부터 파분을 하였다. 장대석이 있었으나 옮겨가는 곳에 장대석을 놓을 만한 자리가 없어 버리고 간다 하였다. 하분에 표석이 없어 누구의 묘소인지 몰랐으나 석회석 위에 숯가루로 쓴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비로소 그게 석담공의 손자 묘소임이 밝혀졌다. 이어 상분의 굴파 작업을 하는데 육중한 둘레석도 역시 옆으로 방치하고 둘레석 밑에 있는 기단석도 같이 옆으로 제껴놓고 있었다. 둘레석과 기단석을 옆으로 치우고 나서 땅을 보니 오색빛이 찬연하였다. 오후가 되자 인근에 사는 주민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영의정 묘소의 이장 광경을 지켜보고 어떤 분의 묘소인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곳에 세거한 원주민은 예전에 이 묘소가 들어와 인근 백리에는 다른 묘소를 쓰지 못했었다는 소리도 했다. 신도비는 옛적 그 묘역 앞턱이 바다였는데 배로 들여오다가 바다에 빠뜨렸다는 전설이 전해온다고 하였다.

하분의 봉분이 다 헤쳐지고 밑에서 석회석광이 보였는데 광중壙中에 철판 같이 단단한 격회隔灰가 사각형으로 되어있었다. 광위에는 오른쪽에 통정대부이조참의지제교권공지묘通政大夫吏曹參議知制敎權公之墓라고 숯가루로 써 있었고 왼편에는 증정부인안동김씨지묘贈貞夫人安東金氏之墓라고 되어 있었다. 상분도 헤쳐지자 밑에 육중한 석회 광이 보였고 그 위에는 영의정권공대운지광領議政權公大運之壙이라고 숯가루로 써 있었다. 오른쪽에는 원비상산김씨부우元 尙山金氏 右, 왼편에는 계비단양우씨부좌繼 丹陽禹氏 左라고 쓰여 있었다.

석회곽을 중장비로 들어내려 했으나 되지 않아 장비로 곽을 파쇄하기 시작하였다. 돌보다 단단한 석회가 깨지고 한참 후에야 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부식하지 않고 그대로였다. 관곽을 들어내자 밑에 물이 차 있었지만 석담공의 체백은 300여년이 지났어도 상당부분 남아 있었다. 관을 들어내 유골을 따로 수습하지 않고 관목과 함께 모아 화장을 한다고 하였다. 이때까지 지켜보던 권진택회장이 내려가자고 재촉하였다. 시흥시나 그곳 문화재당국에는 이곳이 향토 유적으로 조사나 파악이 되어 있지도 않거나 또는 누가 신고를 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지 이처럼 귀중한 국가문화재급 고묘가 훼손 인멸되고 있는데도 시종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 이틀 후인 4월 4일에 기자는 천안시 목천읍 동리의 문중산으로 이장된 석담공의 묘소를 찾아가 봤다. 전일에 이장을 마치고 후손들은 떠났고 인부들이 이날도 남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곳의 납골묘역에 모두를 유좌酉坐로 촘촘이 열지어 안치해 놓고 있었다.

현장의 공사 책임자에게 이장하는 비용을 물으니 1000만원 정도라고 답하였다. 석물을 갖추어서 이장하고 제대로 치수하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 다시 물었더니 3000만원이면 된다는 대답이었다.

<사진 · 글 權奇允>

담백한 맛의 명문

도봉산원조 10년전통

山두부집
도봉산대등산로입구

등산객눈길이팔리고
하산자에깬 참새방앗간 !